

< 별첨 >

CD금리 산정 합리성 제고 방안

2020. 8. 24.

금 융 위 원 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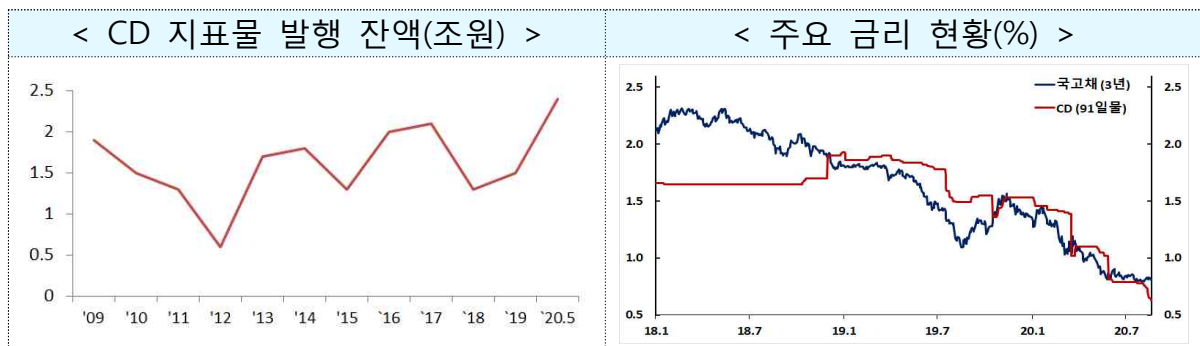
1. 추진배경

- CD금리는 대출 및 파생상품(IRS)등의 기준 금리로 널리 활용* 되고 있으나, CD금리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표물(만기가 91일인 CD)은 '19년 중 약 42일만 발행되는 등 과소 발행되고 있습니다.

* (잔액) IRS(이자율스왑) 6,300조원(상당수가 CD금리를 준거금리로 활용), CD연동 대출 약 180조원

- 이에 따라 CD금리가 시장의 변동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, CD금리와 시장간 괴리가 심화되면서 지표의 타당성, 신뢰성 문제가 야기*되고 있습니다.

* '19년중 CD금리변동 횟수는 37회, 동일금리 지속(10일이상)일수는 179일



-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CD발행 행정지도*(금감원), 예대율 산정 시 CD에 대한 예수금 인정(예수금의 1% 限) 등 조치를 통해 CD 지표물 발행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,

- 지표의 신뢰성 우려가 해소될 만큼 CD의 발행 및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.

* 연간 2조원 CD발행(지표물 1조원)을 은행별로 CD연동 대출실적 반영하여 배분

- 또한, CD금리 산정이 呼價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, CD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과거 수익률을 활용하는 등 금리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도 낮은 측면이 있었습니다.

⇒ 이에 따라, 각종 거래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시장금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번 개선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
2. CD금리 산출 합리화 방안

□ (현행) CD수익률 제출 기관인 증권사(거래실적 상위 10개사)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한 수익률(呼價)을 금융투자협회에서 산술 평균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.

○ 다만,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과거 제출 수익률을 활용하는 등 금리의 경직성이 심화되었습니다.

□ (CD금리 산출 개선방안) EURIBOR등 주요 선진국의 금리 산정 방식 등을 참고하여 지표물 범위를 확대*하고, 실거래 기반의 단계적 금리 산출방법(Waterfall 방법)을 적용하도록 금리산정 방식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.

* (기존) 91일물 CD → (변경) 80일~100일물 CD

< 단계적 산출방법 >

❶ (Level1) 제출증권사가 참여한 적격거래(만기 80~100일, 기관투자자간 100억이상 거래)를 활용하여 CD금리를 산정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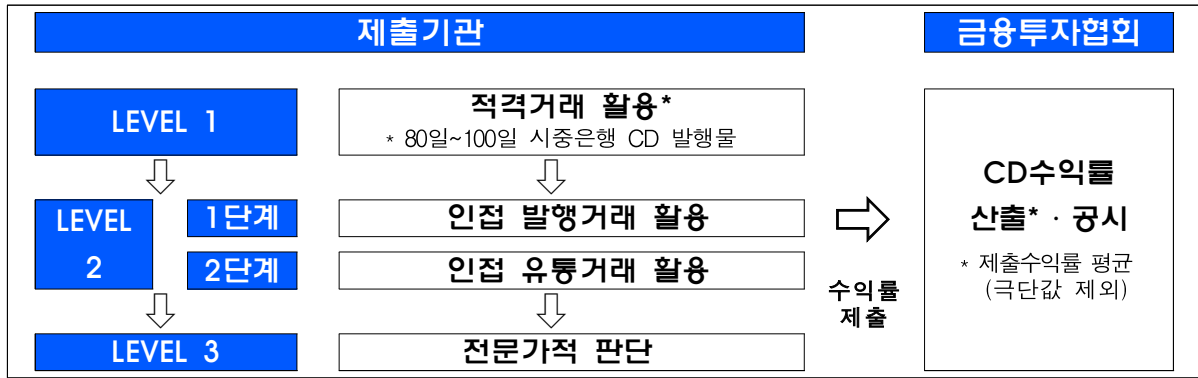
❷ (Level2) Level1의 적격거래가 부족한 경우 인접 만기(2개월 & 4개월 등)*의 발행 또는 유통 수익률을 활용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여 CD금리를 산정합니다.

* (예) 적격거래 無 → 만기 2개월 & 4개월 CD발행금리를 활용하여 산식에 따라 계산

❸ (Level3) 인접 발행·유통수익률마저 부족한 경우,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금리를 산정하겠습니다.

- 특히, 전문가적 판단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사의 금리제출 행위규범 마련, 시장 발행·유통정보 등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< CD금리 산출체계 개선(안) >



3. CD 지표물 활성화 방안

- (현황) CD에 대한 예수금 반영 과정에서 지표물 발행 유인이 낮고^①, 동일인 한도규제^②로 인해 CD주요 인수처인 MMF의 CD인수에 제약이 있습니다.

- ① 예수금 산정시 지표물(만기 91일)과 기타물을 모두 100%로 반영 ⇒ 유동성 규제에 유리한 기타물을 지표물보다 선호·발행
- ② MMF의 동일인 거래한도(채무증권 5%, 채무+기타 10%) 채무증권에 CD도 포함

- (개선) CD 지표물이 기타물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.



- ① (공급측면)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 인정 CD를 현행 지표물·기타물 100% → **지표물은 150%, 기타물은 50%로 차등 인정**하여, 은행이 지표물 발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$$\frac{\text{원화대출금}}{\text{원화예수금} + \text{CD잔액(예수금의 1\% 한도내 지표물 150\%, 기타물 50\%)}} \times 100$$

⇒ 기타물 대비 지표물의 발행 유인이 제고되고, CD 지표물이 안정적으로 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② (수요측면) 자본시장법령상 MMF의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취득 한도* 산정시 CD 지표물에 대해서는 MMF **자산총액의 5%까지는** 동일인거래 **자산(채무증권)에 반영하지 않겠습니다.**(未산입)

* 동일인 발행자산 취득한도: 채무증권 → MMF 자산총액 5%
 채무증권 + 기타자산 → MMF 자산총액 10%

동일인 자산한도(지표물 3%발행 가정)	동일인 자산한도(지표물 8%발행 가정)
 <p>※ CD 3% ⇒ 동일인 한도 未산입</p>	 <p>※ CD 8% 5%를 초과하는 3%만 동일인 한도 산입</p>

⇒ CD의 주요 인수처인 MMF의 자산 운용에 탄력성이 제고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CD 인수여력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- ③ (중개활성화 측면) CD수익률 제출증권사의 CD거래 부담을 경감하고, 산정방식 개편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**CD 수익률 제출증권사의 콜참여를 허용**하겠습니다.

⇒ CD 중개유인이 제고되고, 유통시장이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CD금리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4. 향후계획

- (CD금리 산출 합리화) 금융투자협회는 CD수익률 제출증권사와 CD금리 새로운 산정방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.

- 금년 하반기까지 새로운 금리 산출방법으로 산출체계 검증(Live test)을 마무리하고, 내년에는 새로운 금리를 공시*할 계획입니다.

* ('21.1Q) 산출·공시 시스템 개발 → ('21.2Q) 기존·개선 CD금리 병행공시 → ('21.3Q 이후) 새로운 CD금리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개선CD만 공시

- (CD 공급·수요 활성화) 은행업 감독규정(예대율), 금융투자업규정(동일인한도) 개정은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.('20.下 개정 목표)